

| | | | |
|-----|------------|------|-------------------|
| 성명 | 김수윤 | 수험기간 | 2021.04.~2024.07. |
| 학교 | 경희대학교 | 전공 | 생물학, 과학지능정보융합 |
| 키워드 | 삼시 1차_학기병행 | | |

들어가며

☑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번61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김수윤입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 삼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합격자분들의 수기 중 하나에 불과하기에,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참고하여 제 합격수기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입 계기

기존에 연구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으나, 실제로 랩실에 들어가 일을 해보니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COVID-19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이를 기회로 여러 진로 방향을 찾아보다가 제가 관심이 있던 법과 과학분야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양으로 특허 수업을 들어보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2학년까지 마치고 휴학 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부 - 동차 기간

점수 83.33점 [민법-87.5점, 산업재산권법-95점, 자연과학개론-67.5점, 커트-81.66점]

【사용한 수험서】

민법) 민법의 정석, 포인트 객관식

특허법) 리담 특허법, 도해 특허법, 조현중 기출문제집, 리담 객관식

상표법) 리담 상표법, 도해 상표법, 상표 기출문제집

디자인보호법) 리담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집

자연과학) 따뜻한생물(이영렬), 손용욱물리, 원동신화학, 합격지구화학(박준희)

【민법】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여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 과목일텐데, 생소하게 느껴지는 논리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 강의 수강 후, 민법의 정석 빨리 읽기+느리게 읽기를 반복함과 동시에 객관식2n, 3n, 5n 배수로 회독하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문제 순서가 기억나서 배수를 달리하여 회독하였습니다.

이후1월~2월 즈음 변리사 기출 년도별 문제를 반복하여 풀었고 변호사 당해, 전년도 기출을 풀었습니다. 이상윤 교수님의 최판 강의도 마지막에 수강하였습니다.

민법에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했고, 평소에 가장 자신 있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에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객관식을 볼 때 다소 기계적으로 풀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회독을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졌고, 과다회독이 저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시험에 빨리 진입한터라, 민소법을 미리 공부하는 대신 1,2차 공통과목인 특,상을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1차 산재법은 법체계 이해+ 조문 암기+ 중요판례 핵심 알아두면 합격점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 암기는 홍기 석강사님의 조문집을 활용했고, 조문집에 단권화+ 오답노트를 하였습니다. 시험장에도 단권화한 조문집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1차 때부터 상표가 가장 약했었는데 시험날이 가까워져서도 상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4과목 중 생물, 지구과학을 8~10개 맞기 목표로, 나머지 과목을 방어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생명과과학은 따로 강의를 수강하진 않고 따뜻한 생물 반복 회독과 기출문제집 반복 회독하였습니다. (한달, 2주일, 1주일 단위로 나뉘서)

지구과학은 박준희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반복회독, 합격지구과학 책 안에 있는 기출, 고난도, 단원별 문제를 반복 회독하였습니다. 고난도, 단원별 문제는 기출 보다 덜 회독하였습니다.

물리는 손용욱 교수님의 기본강의 수강 후-> 단원별, 년도별로 기출문제 반복 회독 하였습니다. 12~1월달즈음, 카페에 있는 다른 예상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었고, 마지막 달에는 기출 반복에 집중했습니다.

화학은 제가 가장 약했던 과목이라 방어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원동신 강사님 기본 강의 수강 후-> 필기본 반복회독, 객관식 회독 하였습니다. 어려운 단원은~중난이도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두고 나머지 단원은 기출 반복으로 하였습니다.

1차 공부 - 삼시 기간

점수 78.33점 [민법-85점, 산업재산권법-97.5점, 자연과학개론-52.5점, 커트-76.66점]

10월22일 결과발표가 있고 나서 다음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100일 남은 상태였고, 복학하여 16학점을 듣고 있는 중이라 **시간 분배**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제 현재 상태 정확히 체크, 시험 전까지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제 상태는 민법 거의 생각 안나는 정도, 산재는 조문 기억 안 남, 자연과학 풀이를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은 더 높기에 1차 초시 기준 9~10월달 실력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기에 삼시로 1차를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세히 서술합니다. 각 과목 계획-> 자세한 공부방법 순입니다.

【민법】 [85점]

☑ 공부계획

민법을 가장 큰 비중으로 가져갔습니다.

11월 초부터 ~ 2주까지 민법 최신판에 기존판 필기를 옮기면서 1회독,

2주간 기출 10개년 400제 하루에 4~50문제 훌쩍순으로 2회독과 민법의 정석 1회독,

이후 포인트 객관식 구판으로 50문제 + 정석 50P 반복 회독 하여 12월 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2월은 기말고사로 인해 2주간 민법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회독 주기를 점차 줄여가며 보았고, 최신판례를 더해 시험 10일 전 5일간 정석 1회독, 포인트 객관식 1회독 / 3일간

정석 1회독, 기출 1회독 / 남은 2일간 회독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위주로 회독한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한달 전부터는 주말에 변리사 기출, 모의고사, 변호사 시험을 시간을 재고 풀어 보았습니다.

☑ 공부방법

민법은 휘발되기 쉬운 성격을 가지기에, 조금씩이라도 **반복 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투자해 기본서 4-60페이지 회독, 객관식 4-50문제씩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합격 점수에 들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2차 때 공부방법을 적용해 기본서를 꼼꼼히 회독하기 보다는 **홀렁홀렁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독하면서 헛갈리는 개념은 형광펜으로 칠해가며 읽었고, 회독을 진행할 수 록 하이라이트 된 부분 위주로 읽으니 빠른 회독이 가능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85점]

☑ 공부계획

12월 말까지 1회독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강 후에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 매일 기출 1개년씩, 조문위주로 공부했습니다.

~ 1월 중반까지 특 1.5 디/상 1

~ 시험 전까지 특 1.5 상 45m, 디 30m씩 시간 분배해 공부했습니다.

1차 공부를 하면서 제가 2차 때 챙기지 못했던 기본개념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후 삼시 2차를 하면서 도, 심지어 시험날에도 조약우주, 보상금청구권과 같은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 공부방법

초시 때와 마찬가지로 홍기석 강사님의 조문집에 단권화+ 오답노트 진행하면서 반복 회독하였고, 도해책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도 일단 기출을 풀면서 어느 것이 빈출되는지 확인, 내가 자주 틀리는 개념만 도해에 체크해두고 나중에 그 위주로 반복 회독하여 1차에 적합한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한달 전부터 체크해둔 부분 위주로 도해 회독하였고, 시험장에는 오답노트화한 조문집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연과학개론】

☑ 물리, 화학

삼시로 다시 1차를 하게 된 때 자연과학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11월부터~ 11월 말까지 각 과목을 개념 위주로만 1회독 진행 -> 물리: 손용욱 기출, 화학: 원동신 객관식 1회독 진행했습니다.

이후 진도별 기출, 년도별 기출 번갈아가며 하루에 20문제씩 공부가 안 될 때 풀었습니다.

화학에서 반응속도와 같은 어려운 단원은 공부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중난이도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정도로만 마지막에 시간 투자로 해결하였고, 물리는 교류와 같이 가끔 나오는 단원은 마지막에 하루정도 시간 투자해 공부했습니다.

물리의 경우 생소한 단원에서 1-2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마지막에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념을 볼 시간이 없어, 이동시간, 밥 먹는 시간에만 보고 공부시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 생물,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기억 안 나는 내용이 많아 박준희 강사님의 핵심체크 인강을 1주일 동안 빠르게 들으면서 1회독 하였습니다. 이후 생물, 지구 번갈아가며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한 단원 회독 + 기출 3개년 또는 기본서 수록문제 30개 반복 회독 했습니다.

생물은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생물을 하는 날에는 하루 2-30페이지 + 기출 30문제씩 했습니다.

【공통사항】

아침잠이 너무너무 많은 편이라 출석 스튜디오 습관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9시에는 착석하고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목표로 했으나, 더 일찍 간 적이 많았습니다. 제 공부계획만 잘 지킨다면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해 공부시간에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일 평균 8-9시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기간이 부족했기에, 집안 곳곳에 헛갈리는 개념, 공식을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아 짬짬이 보았습니다.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루하더라도 **반복** 또 반복, 취약한 부분 찾아내 **보완**입니다.

2차에서 불합격하고 다시 1차를 시작하면 신분이 하락한 것만 같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잡생각보다는 하고 있는 공부에만 집중하며 그 기간을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할테니까요.

2차 공부 - 동차 기간

점수 46.66점 [민소-56점, 특허-43.33점, 상표-40.66점, 디보-47.33점, 커트-55.22점]

주변 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리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첫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을 챙기지 않고 과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 후폭풍이 동차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차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게 느껴졌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반포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격상 완전 포기가 불가능해 어찌저찌하여 시험장에는 들어갔으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기득 때 합격할 생각으로 동차 때 시험장에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거의 포기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동차로 돌아간다면, 동차로 합격한다는 마인드로 자신감을 가지고(거의 근자감에 가깝지만) 공부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동차가 아니더라도 기득 합격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차 공부 - 기득 기간

점수 51.88점 [민소-57점, 특허-52.33점, 상표-46.33점, 디보-66.66점, 커트-54.33점]

기득, 삼시 동일하게 공부방법을 가져 갔기에 본 목차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득실패 원인에 대해 기재하겠습니다.

기득으로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욕심을 내었던게 주된 패인이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GS를 풀었고, 쉬는 날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반에 실력이 오르긴 했으나, 시험을 보기 전에 지쳐버려 막판스퍼트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차때부터 약했던 상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3월달에 상표GS 성적이 잘 나오자, 그 성적이 제 실력이라고 믿고 힘을 빼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 실력을 제대로 알게 되서는 자신감을 잃고 실제 시험장에서 낯선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자, 삼시에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기객관화**하려고 했습니다. GS 등수가 높게 나와도, 낮게 나와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7월달이 가까워질수록 GS등수가 떨어지거나 답이 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제가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자기객관화가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조급해 하지 않고, 그저 계획대로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그걸 상기시키며 수험기간을 보내니 가고자 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차 공부 - 삼시 기간

점수 58점 [민소-67.33점, 특허-49.33점, 상표-57.33점, 디보-66.66점, 커트-55.22점]

【수강한 강의】

| | 민소 | 특허 | 상표 | 선택 디보 |
|----|---------------|--------|-------------------------|----------|
| 3월 | 곽준형A (온) | 박형준A | 한경훈 판례 강의 한경훈A (보기만) | |
| 4월 | 이창한A | | 김세원A | |
| 5월 | 곽준형B (온) | 박형준B | 한경훈B 최지환A (온) | 정다운A (온) |
| 6월 | 이창한B | 박형준B | 한경훈B 김세원B (온) | |
| 7월 | 23 이창한, 23곽준형 | 박지환A,B | 최지환B | 김웅 |

【회독방법】

❑ 주소설정

어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공부자료 앞에 포스트잇으로 목표를 적고 그걸 계속 염두하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책이나 지에스 자료에) 또한 저는 이해를 하지 않고 서는 암기가 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먼저 천천히 이해 목적으로 회독 -> 이후에는 전체 목차 중 어느 곳을 읽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GS시즌에 매맞으면서 실력이 늘 것이라는 생각으로 궁금증이 생기면 밑에 Q로 메모해두면서 바로바로 넘어갔습니다.

❑ 암기

암기는 따로 시간을 빼지 않고, 그날 분량을 다 읽고 상기시키는 식으로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그날 읽은 책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한 번 더 전날 분량을 목차만 보고 상기 시키면 점점 장기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주말마다 학원에 갈 때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로 책을 보았는데, 이때 공부한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따로 암기를 앉았으나, 나중에는 책을 머릿속으로 한장 한장 넘겨가며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GS 수강방식, GS 복습】

항상 GS 풀 때는 시험장에서 푸는 마음가짐으로 대했습니다. 최소 5분 전에는 눈을 감고 시험장에 있는 상상을 하며 긴장감을 가졌고, 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서 내용 파악했습니다. 시간은 1시간 58분 정도가 걸리게 해 2시간을 꼭 채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전까지 쉬었고, 남은 시간 동안 원하는 장소에서 GS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기득 때 GS복습을 소홀히 해 나중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화요일까지는 복습을 반드시 끝냈습니다. 보통 1GS 당 1시간 미만이 소요됐습니다. 나중의 GS회독을 위해 문제의 주제, 틀린 것을 엑셀로 메모해두었고, 기본서에 단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달부터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gs 회독 방식을 따랐습니다.

【오답노트】

과목별로 메모장을 활용해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 짬짬이를 이용해 보았고, 실전 연습을 위해gs 풀기 전 항상 오답노트를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 사용한 책

윤곽 기본서, 윤곽 사례집, 통합 사례집 (윤곽에 없는 것 체크), 흐름 기본서(참고)

☑ 공부 방법

회독 주기를 바꿔가며 상기 서술한 방식으로 회독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본서 2.5H , 사례집/GS 1.5H 보았습니다.

#GS를 들을 때는 처음 3월에만 GS진도대로 회독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촘촘한 공부와, 등수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 GS 진도를 피해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사례집은 기본서 회독주기 -2일에 맞춰서 회독했으며, 3~4월에는 문제를 따로 풀지 않고 읽는 식으로 공부 -> 이후에는 목차를 간단히 잡아보고 누락된 논리 체크 후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반복 회독시 누락된 게 없는 문제는 한번 쓱 보고 넘어갔고, 누락된 게 있는 문제는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5월 말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이 시간을 23,24년도 GS 목차 잡는 시간으로 대체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법전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조문 위치나 번호는 대략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날이 다가오면 저절로 암기됨) 또한, 요즘에는 공유와 같은 민법 내용도 있기 때문에 흐름 민사소송법 앞장에 있는 민법 조문을 책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아 틈날 때 눈에 찍어 뒀습니다.

올해, 작년 평석을 서치해 책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실제로 평석 내용이 시험문제로 나온 바가 있기에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답안지 작성법

문제점에는 해당 문제의 논점 나열을 갑,을,병 등 당사자 이름과 같은 사안을 녹여서1-2줄 내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구조는 윤곽을 따르되, GS를 수강하면서 취향에 맞는 것으로 변경한 것도 있었습니다. 분량은 20-21페이지 정도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오르는 과목이어서 남들과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1) 조문번호는 반드시 기재했고 2) 목차에 적극,소극 써주기, 3) 의의, 취지 기재 신경 써주기, 4) 판례는 최대한 논리흐름과, 키워드 살려서 두껍게 기재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5) 사안포섭 판례와 대응하여 기재하고, 결론에 쌍따옴표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허법】

☑ 사용한 책

기득까지 테마 기본서 사용하다가 삼시부터 준특허법으로 변경, 준특허 판례집, 준특허 사례집

☑ 공부방법

따로 강의 수강은 하지 않았습니다. 테마에서 준으로 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제 답안지 구조가 준특허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변경했습니다.

하루 2시간 정도 투자해 기본서 1.5, 사례집 30분 보았습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논점을 언제 써먹어야 하는지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이를 위해 회독시 A급은 강하게, B급은 목차와 키워드 위주, 이외 것은 논점을 알고 있는 정도로 강약조절 하며 읽었고, 트리거 문구를 옆에 기재해두었습니다. 더불어 사례집은 전통적인 문제 숙지, 논점 캐치 용도로 보았습니다. 기출은 2-3회 정도, 이외 것은 2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1회독시 전체 문제 풀이, 이후에는 틀린 것만 보았습니다.

특허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암기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문자와 키워드 혼합해 암기했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은 판례 구조 통암기, 조치형 문제 파트는 조치 암기, 사례형 문제는 기본 재료 암기를 하는 식으로 문제 유형에 맞게 책을 보았습니다. 기본문제와 A급 문제는 포스트잇에 따로 제 목차를 기재해두었습니다.

판례집은 내용 이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회독 진도에 맞춰 하루 15분 정도 보는 식으로 진행했고, GS에서 나왔던 판례를 표시해 두어 회독할 때마다 강약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사례집은 전통적인 문제 숙지, 논점 캐치 용도로 보았습니다. 기출은 2-3회 정도, 이외 것은 2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1회독시 전체 문제 풀이, 이후에는 틀린 것만 보았습니다.

☑️ 답안지 작성법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해 논점 모두 캐치, 답 맞추기를 중요시했습니다. 보통 20-21페이지 작성했습니다.

유형체크 문제 풀이시 먼저 유형 체크, 난이도를 체크했고, 난이도 상의 경우 답 맞추기, 간결하게 기재하려고 했으며, 이외 난이도는 판례 정확도 높이기, 사안포섭 키워드 대응해 두껍게 기재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엄수 1번을 잘 푸는 것이 아닌 4문제 전부다 골고루 잘 푸는 것이 목표이기에, 시간은 2시간을 1시간x2로 나눠 36m, 24m를 반드시 지키려고 했고 초과되더라도 4m 이상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출제자 의도 출제자 의도 파악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논점을 최대한 강하게 나머지를 약하게 하여 잘 보이도록 했고, '묻는 바'에만 답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저배점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는 유형이 많았는데, 묻는 바에만 간결히 답하는 것을 연습했기에 배점 이상으로 기재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판례와 사안포섭 대응 판례는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 두껍게 기재했고, 사안포섭시 원문자를 활용해 판례의 논리흐름을 따라 문제의 사실관계를 녹여 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 반드시 기재 상위 목차 사안에 결론을 기재했더라도 별도로 대목차로 결론을 빼어 꼭 기재해주었습니다.

【상표법】

☑️ 사용한 책

테마 상표법, 데생 판례집, 테마 판례집, 데생 사례집

☑️ 공부방법

상표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판례의 중요성이 매우 큼니다. 문제 풀이시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아야 논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3월에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을 하고 나니 상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상표를 풀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독시, 책을 머릿속에 그대로 넣고려고 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이 적어 하루에 1.5시간 투자해 통암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책의 논리 흐름과 제 생각의 흐름이 동일해졌습니다. 또한 내용 옆에 판례의 사실관계나 논점, 사안포섭 방식 등을 기재해두어 기본서만 보더라도 판례집을 본 것 같은 효과를 주려고 했습니다.

판례집은 1.5시간 중 2-30분을 활용해 기본서 회독 주기에 맞춰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GS복습이나 공부시 중요도와 트리거 등을 표시해두었기에 빠른 회독이 가능했습니다. 7월달이 다가올수록 중요판례를 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기출 문제는 총 2번 풀어보았습니다. 1회시에는 전문제를 풀었으나 2회시에는 어려웠던 것만 풀고, 나머지는 유형만 파악해 두었습니다. 특허 상표 모두 예전에 기출됐던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답안지 작성법

상표는 짱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예시 60회 4번) 잘 쓰는 것을 잘 쓰고 짱돌은 방어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점수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형별 대응 단일 판례 문제의 경우, 해당 판례 목차 흐름을 그대로 가져갔고, 다논점 사례형의 경우 문제를 읽으면서 논점이 된 판례를 표시해 두었고, 목차별로 판례는 핵심만 압축 기재했습니다. 조치형 문제의 경우는 (예를 들어 34조 1항 7호 극복 케이스) 나오는 유형이 거의 정형적이기에 테마에 기재된 틀 또는 포스트잇에 별도 기재해둔 것을 따랐습니다.

#가독성 목차로만 문제가 읽히도록 목차를 자세하고 간결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사안포섭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상품별 또는 판례흐름대로 목차를 나눠 키워드를 살려 기재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5월에 정다운 변리사님의GS를 온라인으로, 6월-7에 김웅 변리사님GS를 스터디로 풀어보았습니다. 하루3-40분 아침마다 반복회독하였습니다. 특히, 상표와 공동되는 점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정다운 변리사님의 판례집을 함께 보았는데, 회독시 함께 읽으면서 중요 판례만 체크했습니다. GS와7월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득 때도 잘하지 못했었지만 실전에서는 잘 나와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자신의 방식에 맞게”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기득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차단하였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저와 맞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시를 하면서는 스터디 친구들과 공부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즐겁게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공부 이외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했기에 제가 가장 못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포기했습니다. 9-10시쯤 착석하여 12-1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하였고, 그 시간에는 유튜브를 보거나 부족한 판례집을 보았습니다. 기득까지는 하루에 10시간 주 60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면, 삼시 때부터는 공부시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8-9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는 일요일 저녁에는 맛있는 것을 먹었고, 월요일에는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편한 친구 또는 가족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방식을 변경하니, 시간 대비 공부 효율이 더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제 챙겨먹기, 자기 전 휴트하기 정도였고 별도로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감사인사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리사 공부를 하겠다는 말에 당황하셨으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득에서 불합격하고 나서는 저조차도 저에게 믿음을 갖지 못했으나, 부모님께서 저 라는 사람을 믿어 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삼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옆에서 항상 저를 챙겨준 수린이언니도 감사합니다. 맨날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신 따꾸할머니, 할머니, 이모, 큰엄마, 임숙이이모, 순기삼촌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삼시동안 저를 도와준 수곤이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갚는 까치가 될게요. 기득기간 함께 했던 희수언니, 윤정이언니, 혁이오빠, 예림이도 감사합니다. 오랜 수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저를 챙겨준 재민이, 종종 전화해 준 현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험 발표 후 무작정 연락한 저를 반겨준 가람이언니도 감사합니다. 소식 없는 제게 먼저 연락해준 소민이언니, 민영이언니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복학해서 유령처럼 다니던 저를 챙겨준 학교 동기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시반 사람들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삼시동안 항상 같이 있었던 우리 정은이, 정석이오빠, 수진이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수험기간이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같이 합격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62기 제일 멋진 변리사가 될 수진이언니, 예진이언니, 준영선배 제가 많이많이 응원합니다. 그 밖에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한 강사님, 곽준형 변리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박지환 변리사님, 한승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최지환 변리사님, 김세원 변리사님, 정다운 변리사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득부터 삼시까지 도와주신 정승우 변리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며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게 더 많은 수험 기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 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지만 가장 밝게 빛나고 있을, 이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꼭 합격해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suyun0670@g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